

로 장날에 장정들이 즐긴다. 안노인들이 윷놀이를 즐길 때 간혹 윷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궁윷말’이라고 부른다.

(3) 윷점치기

설날이나 정초에 민가(民家)에서는 윷가치[윷가락]를 던져 한 해의 신수(身數)를 알아보는 윷점치기를 행한다. 윷점치기의 방식은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치를 세 번 던진다. 첫 번째 도가 나면 1, 두 번째 개가 나오면 2, 세 번째 걸이 나오면 3이 되며, 이것이 점수가 된다. 이를 『주역(周易)』 64괘로 점친다.

제4절 아이들 놀이

1. 남아 놀이

1) 고누

꼰띠기라고도 하며, 땅바닥이나 사방 30cm쯤 되는 널빤지에 여러 가지 모양의 판을 그린 뒤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결정짓는 놀이이다. 말은 주로 자갈이나, 나뭇조각, 나뭇잎 등이 사용된다. 주로 여름철에 그늘이나 소먹이기를 하면서 즐기는 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상대의 말을 모두 잡아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거나 상대의 집을 차지하면 이긴다. 이처럼 놀이의 방법은 단순하나, 놀이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고누[꼰]의 종류로는 우물고누[샘고누·강고누], 줄고누, 밧고누, 곤질고누, 참고누, 호박고누, 돼지고누, 포위고누, 왕고누, 등이 있다.

2) 구슬치기

구슬치기의 놀이는 매우 다양하다. 대개 다섯 개의 구멍 속에 집어넣는 방법과 원안의 구슬을 쳐내는 방법이 대종을 이룬다. 이 밖에도 훌쩍이라 하여 손안의 구슬의 수를 맞추어 따먹는 방법이 있다.

3) 깡통차기

숨바꼭질과 같은 구조의 놀이이다. 대개 겨울철 빈 밭이나 마당이 넓은 집에서 소리가 잘 나는 깡통을 갖다 놓고 이를 진으로 삼는다. 숨어 있던 아이가 술래 몰래 깡통을 먼저 걷어차면 먼저 잡혔던 아이들도 다시 살아난다. 이때 술래는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가 놓고 다시 아

이들을 찾는다.

4) 낫치기

주로 여름철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풀[풀] 베러 가서 즐기는 놀이이다. 풀이나 나무를 한 짐[다발]씩 묶어 세워놓고 낫을 던져 나뭇단이나 풀단에 꽂는 방법이다. 낫이 제대로 꽂히면 이기고, 땅에 떨어지면 진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풀 단이나 나뭇단을 가져간다. 또 ‘꼴치기’라 하여 풀단을 일정한 위치에 두고 금을 긋고 나서, 대개 3~4m 뒤에서 낫으로 던져 풀단을 금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에게 놀이에 참가한 사람이 풀단을 주는 놀이가 있다.

5) 딱지치기

직사각형의 종이 두 장을 서로 포개 접어 딱지를 만든다. 대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만든 딱지를 여러 명이 각각 딱지 한 장씩을 땅바닥에 놓고 가위바위보로 딱지 치는 순서를 정한다. 이긴 어린이가 딱지를 들고 땅바닥에 깔고 딱지의 모서리를 친다. 이때 딱지가 뒤집히면 판 것으로 간주한다. 뒤집히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공격권이 넘어간다.

6) 땅따먹기

땅재먹기 또는 땅뺏기라고도 한다. 주로 마당에서 놀이된다. 평평한 마당 위에 사각형의 금을 그어 놓고 마주 앉아서 각자의 집인 타원형을 그린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뒤 주로 납작한 돌멩이나 사금파리 조각 또는 병뚜껑 등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세 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확보된 면적이 자기 땅이 된다.

7) 말타기

대개 두 패로 나누어 즐기는 놀이로써 한패는 4~5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결정하며, 진 팀이 말이 된다. 진 팀의 한 명이 담벼락이나 나무에 등을 대고 선 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옆드려 말을 만든다. 이긴 팀은 뒤쪽에서 뛰어와 말등에 올라탄다. 이긴 팀이 모두 타면 말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엉덩이를 흔들며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이때 떨어지면 진다.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결정하게 된다.

8) 목동말타기

길이가 같고 튼튼한 두 개의 나무막대기에 발판으로 가능한 가지를 붙여 이것을 타고 노는 놀이이다. 목동말놀이는 대개 일정한 곳을 반환하여 오는 경주나, 서로 밀쳐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놀며 집단으로 편을 갈라 논다.

9) 못치기

못치기는 주로 추운 겨울날 논이나 밭에서 즐기는 놀이이다. 놀잇거리는 대못이나 나무 못 등을 사용한다.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편을 갈라 논다. 평평한 땅에 길이 1m가량의 선을 그어 놓고 순번을 정하여 땅에 못을 후려쳐 쫓는다. 그런 후에 미리 그어진 선과 못을 후려친 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는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상대방이 못을 쫓을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기게 된다.

10)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올대마추기’라고 하며, 한 뼘 정도의 납작한 돌을 마당에 세워놓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미리 준비한 납작한 돌로 세워진 돌을 먼저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공격권이 바뀐다. 올대마치기[비석치기]의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리 그어 놓은 선에 발을 대고 선채로 발등을 조금씩 올대를 쓰러뜨린다. 두 번째는 선 [금]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올대를 쓰러뜨린다. 셋째는 두발개, 네 번째는 세발개, 다섯 번째는 차당기기, 여섯 번째는 토끼뿔, 일곱 번째는 똥싸개, 여덟 번째는 배불레기, 아홉 번째는 툇싸개, 열 번째는 똥물장사, 열한 번째는 형벽, 열두 번째는 신문배달이라 한다.

11) 썰매타기[시갯도 타기]

겨울철에 하는 놀이로 주로 논이나 개울의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놀이이다. 울진지역에서는 시갯도타기라고 한다. 썰매는 외발형과 양발형으로 나뉘며 주로 소나무로 틀을 만들고 얇은 철사나 강철판으로 썰매의 날은 만든다. 나이가 든 아이들은 주로 외발형썰매를 즐기며 어린아이들은 양발형을 즐긴다. 외발형은 앉아서 타는 방법과 서서 타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12)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세계 곳곳에서 즐겨 행하는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연날리기 역시 문자(文字) 시대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내력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삼국사기』의¹⁰⁴ 기록을 통하여 그 연원을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날리기가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때는 조선조 영조[1725~1776] 무렵으로 추정된다. 연을 만드는 법은 대개 대쪽을 가로, 세로로 붙여 원하는 모양대로 연을 만든 후에 창호지를 붙인 뒤 열레[실패]를 만들어 줄을 달아 공중으로 띄워 올린다. 간혹 오색을 칠하기도 한다. 연 놀이를 할 때는 연중의 경우 실을 여러 겹씩 겹쳐, 아교로 문질러 연살이 잘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치자물을 들이기

104. 연에 관한 옛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권 41, 열전 제1, 김유신(金庾信) 상조(上條)의 기록을 참조.

도 한다. 연실은 주로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사용했으며 최근에 와서 나일론 실을 많이 쓴다. 연실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교칠을 하거나 사기가루를 묻히는데 이를 ‘가미한다’라고 한다. 연실을 조절하는 열레는 ‘자세’, ‘연실패’라고도 하는데 대개 두모열레, 네모열레, 육모열레, 팔모열레가 있다. 연날리기의 절정은 정월 대보름날이다. 이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둑이나 들판, 불가[백사장]에 모여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축원문을 써 붙이고, 자신의 생시(生時)를 함께 써서 날려 보낸다. 이를 ‘송연(送鵞)’한다고 한다. 연날리기의 재미는 ‘연싸움’에서 극치를 이루는데 겨루기 방법으로는 높이 띄우기와, 재주넘기, 연줄끊기 등이 있다. 울진지역의 연의 생김새는 대개 직사각형의 단순한 형태이며, 아이들은 주로 몽땅연을 많이 날린다. 연의 종류는 방패연, 가오리연, 창작연 등으로 나뉘며, 이중 방패연은 꼭지연, 치마연, 동이연, 초연, 박이연, 돈박이연, 나비연, 바둑판연 등으로 세분화기도 한다.

13) 자치기

주로 겨울철과 봄철, 밭농사가 시작되기 전, 빈 밭을 이용해 즐기는 놀이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전승되었다. 자치기의 도구는 주로 아까시나무로 만든 메뚜기와 잣대로 구성된다. 메뚜기와 잣대가 마련되면 마당이나 밭고랑에 구멍을 판다. 이어 편을 나눈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메뚜기를 파놓은 구멍에 걸쳐 잣대로 밀어낸다. 이때 상대방이 잡으면 죽는다. 밀어낸 메뚜기를 구멍으로 집어 던져, 역시 구멍으로 들어가면 아웃된다. 집어던진 메뚜기를 잣대로 톱 튀겨 쳐낸다. 세 번에 걸쳐 쳐내며, 구멍으로부터 잣대로 한자, 두자씩 쥔다. 멀리 쳐낼수록 점수가 높다. 이렇게 반복해서 미리 정해놓은 점수를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하게 된다.

14) 장치기

주로 소년들이 소를 먹이면서 틈을 내어 즐기던 놀이이다. 장치기에 필요한 도구는 솔방울이나 둥근 나무뿌리 또는 새끼를 뭉쳐서 만든다. 또 얼음판 위에서 할 때는 얼음조각을 사용하기도 한다. 장치기채는 주로 지게막대기를 사용하며 요즈음의 골프채와 비슷한 나뭇가지를 구하기도 한다. 장치기의 승부 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 서로 마주 보는 곳에 큰 돌로 골문을 만들고 그 속으로 공을 처넣는 방법과 또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공을 놓은 뒤 멀리 쳐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다. 장치기는 주로 집단으로 편을 갈라 하는데 보통 나뭇단내기, 풀[소풀]단내기 등을 한다. 군에서는 50~60년까지 매우 왕성하게 놀이 되었다고 한다.

15) 제기차기 1

제기차기는 제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차올리는가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주로 제기는 엽전과 얇은 종이[주로 창호지]를 이용해서 만들며 둘 이상이면 겨루기가 가능하다.

다. 제기차기에는 한쪽 발로 차기 양쪽 발로 번갈아 차기 한쪽 발을 든 채로 차기 등이 있다.

16) 제기차기 2

남자아이들이 마당이나 공터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하던 놀이다. 제기는 엽전이나 동그랗게 다듬은 옹기 조각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먼저 한지 가운데에 엽전을 놓고 여러 번 접어서 엽전을 감쌌다. 그리고 엽전의 구멍과 일치하도록 구멍을 뚫은 다음 길게 접은 한지를 구멍 사이로 빼냈다. 그런 다음 빠져나온 한지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술을 만들었다. 옹기 조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멍을 뚫지 않고 옹기조각을 감싼 상태에서 목 부분을 실로 감은 뒤 길게 접은 부분을 잘라서 술을 만들었다. 놀이 방법으로는 ‘한발차기’와 ‘양발차기’가 있었다.

17) 쥐불놀이

대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발독이나 강독, 물가[백사장]에 짚 더미나 나뭇더미를 쌓아 불을 지펴서 노는 놀이이다. 또 강통이나 솜뭉치, 관솔불을 들고 동네 야산에 올라서 빙빙 돌리며 정월 보름달을 맞이하는 놀이 형식도 있다. 달집태우기, 또는 망월이라고도 한다. 쥐불놀이는 보름달을 보면서 한 해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세시에 따른 의례 놀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18) 진(陣)뺏기

울진지역 전역에서 행해지던 놀이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들이 많이 즐긴 놀이이다. 진놀이이라고도 하며, 큰 나무나 남가리 등을 진(陣)으로 삼고 편을 갈라 서로 상대편을 잡아 오는 놀이이다. 편수는 양편이 모두 동일하며 진을 지키는 아이를 진직이라고 부른다. 진직이는 손끝이 진에 반드시 닿아있어야 한다. 진을 뺏기 위해서는 진직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진을 손으로 만지면 된다. 놀이의 승패는 포로를 아무리 많이 확보하더라도 진을 빼앗기면 지게 된다. 오랫동안 서로가 진을 뺏지 못하면 잡은 포로의 숫자로 승패를 가름한다.

19)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겨울철에 행해지는 놀이로 주로 논이나 개울의 얼음판 위에서 행해지며 마당에서도 행해진다. 팽이는 소나무를 이용해 직접 깎아 만들며 원뿔모양의 앞쪽에 못을 박아 만들기도 한다. 팽이채는 나무막대기에 닢나무껍질을 여러 겹 묶어 만든다. 놀이 방법으로는 오래돌리기, 멀리치기, 빨리돌아오기, 부딪쳐돌아오기 등이 있다.

2. 여아 놀이

1) 고무줄놀이

고무줄 한 가닥으로 하는 방법과 고무줄의 끝을 묶어 발독에 걸어 노는 방법이 있다. 주로 동요에 맞추어 정해진 동작으로 발목에서부터 키 높이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기게 된다. 순서나 동작이 틀리면 교대를 한다. 주로 고무줄놀이 때 부르는 동요로는 ‘아가야 나오 너라 달맞이 가자’, ‘동무들아 나오너라’, ‘풍당풍당’ 등이 주로 불린다.

2) 공기줍기

공기놀이라고도 한다. 작은 돌맹이 다섯 개로 놀이를 하며 방법으로는 하나집기, 둘집기, 셋집기, 모두집기, 장찍기[간장, 고추장], 가두기, 꺾기의 순서로 한다. 과정을 이어서 모두 마친 뒤 미리 정해놓은 점수를 먼저 확인하면 이기게 된다.

3) 방망이점

여자아이들이 방안에서 하던 놀이로 보통 대여섯 명 정도가 모였을 때 많이 했다. 먼저 아이들이 둘러앉은 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아이가 원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가 방망이를 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웠다.

일금부사 황태조 / 이금부사 귀향초
삼금민방 조자룡 / 사천박우 황박우
오관천장 관운장 / 육금인명 김시화
칠금칠금 칠과장 / 팔륜풍일 차득아
구원집사 하운장 / 백자축 갑자을축
축이로다 백자을 / 천이로다 백자을
(김분녀, 여, 78세).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어느 순간 방망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이 내린 것이므로 방망이를 쥔 아이가 무엇이든 알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미리 물건을 숨겨 놓고 질문을 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잃어버린 물건의 소재를 물어보기도 했다.

4) 사람찾기

소녀들이 즐겨 놀던 놀이로 콩심기놀이와 유사하다. 편을 가르지 않고 아이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노는 놀이이다. 가위바위보로 술래[범]를 정하고 수건으로 두눈을 가린다. 이때 범이 알지 못하도록 토끼를 미리 정해놓는다. 토끼가 범 몰래 등 뒤로 다가가서 등을 한번 찌른 뒤 제자리에 가서 앉는다. 아이들이 찾으라고 소리치면 범은 수건을 풀고 자기 등을 찌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범이 자기 등을 찌른 토끼를 찾아내면 토끼가 가운데로 나아가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절을 하기도 한다. 범이 토끼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아이를 찍으면 범이 아이들 요구에 응한다.

5) 사방치기

깨금집기, 팔방치기라고도 하며 마당이나 평평한 공간에 여러형태의 선[모형]을 그어 놓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깨금발[질]로 납작한 돌을 차고 나가는 놀이이다. 주로 10살 미만의 여자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로 2~3명이 주로 하며 인원이 많을 때는 편을 갈라 놀기도 한다. 사방치기의 종류로는 ‘비행기 사방치기’, ‘네모 사방치기’, ‘세줄 사방치기’ 등이 있다.

6) 오재미놀이

모래주머니 받기라고도 한다. 작은 형겅으로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 속에 모래나 팔 등을 넣는다. 마당이나 빈 밭에 사각형의 금을 그린 뒤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결정한다. 3~4개의 모래주머니를 동시에 던지며 놀기도 한다. 선 안의 사람을 모래주머니로 던져 맞히면 맞은 아이는 탈락한다. 안에 있는 아이가 던진 모래주머니를 손으로 받으면 탈락한 아이를 살려놓기도 한다.

7) 춘향이놀이

방안에서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던 놀이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춘향이를 정했다. 춘향이는 손바닥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춘향이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런 다음 둘러앉은 아이들이 춘향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웠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땅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 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용마루에 어깨 짚고 설설히 내려주세요
(김춘희, 여, 70세)

주문을 외면 어느 순간 춘향이가 손을 벌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춘향이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데, 특히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잘 맞췄다고 한다. 궁금한 점이 없으면 춘향이 역을 맡은 아이를 때려서

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절하거나 미쳐버린다고 했다.

3. 남녀어린이 공통놀이

1) 가마놀이

대개 편을 갈라 하는 놀이로, 한 편은 세 사람으로 구성된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자기 오른손으로 왼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 팔목을 잡아 우물정자 모양을 만든다. 그 위에 다른 아이를 태운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가마와 흡사하다. 양 팀이 가마를 만들어서 편싸움하기도 한다.

2) 그림자 비추기

전깃불이 없던 시절에 흔히 방안의 등잔불이나 호롱불 밑에서 하던 놀이이다. 불빛 앞에서 여러 가지 손 모양을 하면 그림자가 창문이나 벽에 나타난다. 손으로 여러 가지 동물 형태를 만들며, 그 종류로는 개, 여우, 토끼 등이 있다.

3) 눈싸움

서로 마주 서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데 이때 눈을 먼저 깜박이는 쪽이 진다. 눈싸움 중간에 서로 이기려고 여러 동작으로 상대방을 방해하기도 한다.

4) 다리세기

이 놀이는 어린이들이 방안이나 마루 등 주로 실내에서 마주 앉아 다리를 서로 엇갈리게 뻗고서 노래를 불러가며 다리를 세면서 즐기는 놀이로 발해기라고도 한다. 놀이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연행되나 울진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다리를 엇갈리게 뻗고 앉아 노래에 맞춰 손바닥으로 짚어가다가 노래 마지막 마디를 부르고 뿔을 하려는 순간 미처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면 지게 되며 또 날쌔게 오므리면 다음 어린이가 지게 되는 놀이이다. 이때 불리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한가떼 / 두가떼 / 양양거지 / 팔대장군 / 소래군사 / 고푸레 뽕 / 이거리 / 저거리 / 갓거리 / 송서방네 도망간 / 오개축축 / 잠자꼬 / 서울내기 / 열두냥 / 풍기내기 / 열석냥 / 음지양지 / 범삼사 / 노리개 뽕

5) 닭싸움

‘깨금발 싸움’이라고도 하며,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편을 갈라서 논다. 각자가 한 쪽 발로만 땅을 디디고 한 손으로 들어 올린 다리의 발목을 잡고, 상대방끼리 부딪쳐 상대방

을 쓰러뜨리거나 손을 놓치게 하면 이기게 된다. 이때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발을 교대해도 안 된다.

6) 방아깨비놀이

방아깨비의 두 다리를 잡고 있으면 방아깨비가 달아나기 위해 용을 쓰는데, 이 모습이 흡사 방아 찹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때 아이들은 ‘아침방아 찼어라, 저녁방아 찼어라, 쿵쿵찼어라’하며 노래를 부른다.

7) 봉사놀이

봉사놀이는 소경놀이 까막잡기라고 한다. 대개 두 편으로 나뉘어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정한다. 원을 그리며 둘러앉았는데 서로 상대방 아이들이 번갈아 앉는다. 이때 양편에서는 민첩한 아이를 한 명씩 선정하고 수건으로 이들의 눈을 가린다. 한 쪽편을 잡는 편, 다른 아이는 달아나는 편으로 해서 고양이와 쥐를 만든다. 고양이 쪽이 술래가 된다. 쥐는 손뼉을 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고양이는 손뼉 소리를 따라 쥐를 잡으러 다닌다. 고양이나 쥐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8) 산가지 놓기

대개 산가지나 성냥개비로 3~4명이 모여서 놀이를 한다. 산가지 놓기의 종류로는 ‘산가지 떼어내기’, ‘산가지 형태바꾸기’, ‘한 개의 산가지로 여러 개 들어 올리기’, ‘삼각형 없애기’, ‘쌍만들기’ 등이 있다.

9) 숨바꼭질

대개 아무런 도구 없이 보름날 밤이나 밤중에 행해진다. 깡통을 사용하면 깡통차기가 된다. 노는 방법은 여러 아이 중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결정한다. 놀이 장소 또한 실내, 실외 모두 가능한 게 특징이다.

10) 실놀이

주로 두 명이 마주 보며 하는 놀이로 적당한 길이의 실 양 끝을 묶고 양손에 팽팽하게 걸어서 당긴 후 두 손에 한 번씩 실을 감는다. 그런 다음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의 실을 감고 왼손 가운데손가락으로는 오른손의 손바닥 줄을 감아올리면 X 모양이 된다. 이 같은 행위를 두 사람이 번갈아 행한다. 젓가락, 다리, 절구통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진다.

11) 줄넘기

한 발 길이 이상의 새끼줄을 양손에 잡고 돌리면서, 두 발을 뛰면서 넘는 놀이로 개별적으로 놀거나 편을 갈라서 놀기도 한다. 집단으로 편을 갈라 놀 적에는 한 사람씩 줄을 뛰어넘고 돌리는 사람의 뒤를 한 바퀴씩 돌아 줄을 넘는 행위를 반복한다.

12) 팔랑개비돌리기

뺏뺏한 종이 한 장을 대각선으로 접고 편 뒤 네 귀를 자른다. 잘린 네 귀를 하나 건너 하나씩 굽혀 접은 뒤 성냥개비로 뚫고 수수깁에 끼운다. 그런 다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들고 서 있으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된다. 주로 혼자서 하는 놀이이다. 유사한 놀이로 ‘굴렁쇠 굴리기’가 있다.

13) 풀싸움

풀싸움은 주로 봄철에 많이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로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주로 아카시아 풀잎이 놀이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둘이서 놀기도 하고 또 여럿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정한 뒤 가운데손가락을 튕겨서 풀잎을 뜯어낸다. 먼저 다 뜯어낸 쪽이 이긴다.

14) 하늘땅놀이

주로 남자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나 여자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주로 비가 온 다음 날 작은 도랑에서 하는 놀이로 두 편으로 패를 갈라 가위바위보로 공격권을 선정한 다. 이긴 편은 도랑의 위쪽에 흙이나 돌로 독을 쌓아 물을 가두고, 진 팀은 도랑의 아래쪽에 흙이나 돌로 독을 쌓는다. 독 쌓기가 끝나면 위쪽에서 물 받으라고 소리치면서 쌓았던 독을 허문다. 이때 아래쪽의 독이 물살에 의해 무너지면 승패가 가려진다.